

프랑스저항문학에 대한 리해

김 경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은 민족과 동떨어 진것이 아니며 민족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일정한 역사적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44권 241페이지)

20세기 40-50년대에 프랑스에는 저항문학이라는 특이한 문학조류가 존재하였다. 이 문학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도이칠란드파시즘을 반대하는 프랑스인민들의 반파쇼애국투쟁을 반영한 문학으로서 그 대부분 작품들이 항전참가자들에 의하여 창작되었으므로 저항문학이라고 부른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프랑스인민들은 무능하고 비겁한 지배층의 투항주의적정책으로 인하여 나라가 파쇼도이칠란드의 강점밑에 놓이게 되자 반파쇼항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이 운동에는 애국적인 문인들도 망라되였다. 광범한 애국적작가, 문화인들은 반파쇼항쟁을 벌릴데 대한 공산당의 호소에 따라 문학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것은 1941년에 조직된 민족작가위원회였다. 이 조직은 프랑스의 모든 애국적문인들을 망라하는 통일적인 조직체로서 모든 작가들이 인민들을 반파쇼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도록 지도하였다.

민족작가위원회의 기관지는 《프랑스문학》으로서 여기에는 주로 항전참가자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실었다. 이와 함께 《프랑스문학》은 보도기사들을 통하여 도이칠란드강점자들의 야수적만행과 민족반역자들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인민들이 발휘한 위훈을 널리 소개하였다.

또한 기관지는 《프랑스전선》이라는 특별란을 설정하고 유격부대들의 전투공적과 도이칠란드군의 패전을 제때에 보도함으로써 프랑스인민들을 반파쇼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외에도 민족작가위원회는 《별》, 《남부의 학습장들》, 《죄수시인들》, 《자유대학》, 《자유사상》, 《항전》과 같은 신문과 잡지들을 발간하여 프랑스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고무하였다.

프랑스의 해방과 더불어 문학저항은 끝나고 민족작가위원회는 존재를 마치였다.

그러나 그 기관지인 《프랑스문학》은 계속 존재하면서 점차 이 신문에 투고하는 많은 진보적작가들을 망라하는 문학단체의 명칭으로 되였다.

《프랑스문학》은 전후에도 작가들속에서 파시즘을 폭로하는 작품들을 창작하도록 추동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1950년대까지 제2차 세계대전을 취급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저항문학이라는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게 되였다.

프랑스저항문학은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이 문학은 파쇼도이칠란드의 프랑스강점과 그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을 신랄하게 폭로하였으며 그들을 반대하여 일떠선 프랑스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보여주고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였다.

이 문학에서는 도이칠란드침략자들을 프랑스땅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인간들의 형상이 창조되였다.

저항문학의 시작품들은 주로 전쟁시기에 창작되었으며 소설작품들은 전후시기에 많이 창작되었다. 이밖에도 저항문학에는 정론, 신문기사 등과 같은 양식의 글들이 있다.

프랑스저항문학은 창작방법에 있어서도 단일하지 않다.

프랑스저항문학창작에는 이전시기에 사상적견해와 미학적리상을 달리하던 여러 계층의 작가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속에는 공산당원작가도 있었고 전쟁전에 퇴폐적인 경향에 물젖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은 파시즘을 격멸하고 프랑스의 해방을 이룩하려는 공통된 애국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단합되었으며 반파쇼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지향하던 종래의 창작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었으며 따라서 저항문학에는 다양한 흐름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프랑스저항문학에는 비판적사실주의경향의 작품이 있는가 하면 낭만주의작품도 있으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로 접근한 작품들도 있다.

이 문학의 많은 작품들은 파쇼도이칠란드의 프랑스침략과 야수적만행을 폭로하고 도이칠란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인민들을 호소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소설 《나의 직업은 살인이다》, 《풀이 다시는 돌아나지 못하는 곳》, 《죽은 사람들의 시간》, 아라공과 엘류아르의 일부 시가들이 대표적작품들이다.

장편소설 《나의 직업은 살인이다》(1952, 메를르)에서는 오스벡썸수용소 소장이었던 주인공 루돌프 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히틀러파쇼도당과 랑과 같은 살인광을 길러낸 파시스트정치체제의 반동성과 비인간성을 폭로비판하였다.

중편소설 《풀이 다시는 돌아나지 못하는 곳》(1952, 미난)에서는 베에쥬라는 도시의 모든 평화적주민들을 생매장해버린 파시스트들의 죄행이 단죄되고있으며 중편소설 《죽은 사람들의 시간》(1952, 가스까르)에서는 서부우크라이나지방에 큰 집단수용소를 건설하고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학살한 도이칠란드침략자들의 범죄행위가 적라라하게 폭로되고있다.

프랑스의 이름있는 시인이며 프랑스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었던 루이 아라공은 시 《크나큰 공포의 고불랑주단》에서 파쇼도이칠란드 놈들이 프랑스로 쳐들어오던 시기의 프랑스의 참상을 그대로 펼쳐보이였다.

그는 대피하던 인민들이 당하는 불행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프랑스의 리익을 팔아먹은 매국역적들에 의하여 초래된 민족적비운의 일단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아라공은 또한 시 《싸움없이 함락된 빠리》, 《영광》, 《버림받은 처녀애》 등에서 파쇼도이칠란드의 야수적인 만행에 의하여 프랑스가 인간불모의 생지옥으로 되여가고있다고 비분을 토로하면서 프랑스의 아들딸들이 민족의 불행에 대하여 걱정만 하지 말고 파시즘을 반대하는 성전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퇴폐적인 사조에 끌려들었던 시인 엘류아르도 전쟁으로 각성하였으며 시 《용기를 내여라》에서 강점당한 빠리의 비극적현실을 펼쳐보이고 그속에서도 의기를 잃지 않는 인민들의 장한 모습을 찬양하였으며 그들에게 파시즘을 격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프랑스저항문학의 주요한 주제의 하나는 도이칠란드강점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쟁투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용감성과 희생성을 높이 찬

양하고 반파쇼애국투쟁의 승리를 확인한것이다.

장 라피뜨의 장편소설 《프랑스의 장미》(1950)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속에서 처녀교원이 투사로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원래 순박하고 무서움을 잘 타는 처녀교원이었던 주인공 마리 베르농은 나라가 파쇼도이칠란드에 의해 강점당하자 지하조직성원이 되어 노동자와 농민들속에서 반파시스트 선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지하출판물인 《유마니떼》를 보급한다. 그 과정에 베르농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지만 슬픔을 이겨내고 용감한 투사로 자라난다.

줄 베르꼬르는 단편소설 《바다의 침묵》(1942)에서 자기 집에 틀고앉은 도이칠란드장교앞에서 절대로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는 늙은 로인에 대한 짝막한 이야기를 통하여 평범한 프랑스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애국적감정을 간결한 필치로 생동하게 그려보여주었다.

아라공도 시 《사형장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에 대한 담시》에서 《유마니떼》의 편집국장이며 공산당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가브리엘 빠리가 발휘한 애국정신을 격조높이 찬양하였다. 시에서는 파쇼악당들과의 결투, 당에 대한 생각, 굽히지 않는 신념, 용감한 최후 등 주인공의 생애의 마지막시각을 재현하면서 자기 조국과 인민과 당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진 공산당원의 성격적특질을 강조하고있다.

이밖에도 이 주제를 취급한 작품들로서는 파쇼도이칠란드강점자들을 반대하는 프랑스빨찌산들의 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 《유럽교육》(1945, 로맹 가리), 《단독집단》(1951, 자끄 빠레), 아라공의 시 《스트라스부르그종합대학의 노래》, 《가브리엘 빠리에 대한 전설》 등이 있다.

프랑스저항문학에서는 수용소생활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이 주제의 작품들은 히틀러파시스트도배들이 만들어놓은 수용소들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과감한 투쟁을 전개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원쑤들의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반의 길로 굴러떨어진 변절자들의 정신도덕적추악성을 준렬히 규탄하였다.

장편소설 《마지막요새》(1950, 빠에르 맥스)에서는 마우트하우젠수용소에 포로된 공산당원들이 놈들의 기만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벌리며 탈출을 조직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장편소설 《산 사람들은 싸운다》(1947, 장 라피뜨)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수용소포로들이 단결하여 온갖 육체적 및 정신적고통을 꺾고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과 지조를 고수한다. 작가는 그들을 가리켜 투항을 강요할수도 없으며 배반을 강요할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높이 찬양하였다.

장편소설 《암흑의 무기》(1946, 베르꼬르)에서는 지하조직에 망라되였던 양주가 놈들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게 되자 목숨을 유지하려는 비겁한 욕망으로 하여 변절한다. 소설은 변절자 양주의 추악한 형상을 통하여 개인의 목숨만을 귀중히 여길 때에는 인간의 양심마저 저버리고 배신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있다.

이밖에 장편소설 《와프랭소좌》(1956, 아르망 라누), 《광명의 힘》(1951, 베르꼬르), 《대휴》(1946, 암브리에르) 등도 이 주제에 바쳐진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프랑스저항문학은 파시스트들을 몰아내고 민족적해방을 이룩하며 평화를 이룩할데 대한 문제는 제기하였으나 국내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과 인민들의 계급적해방에 대

한 문제는 제기하지 못하였다.

저항문학의 많은 작가들은 도이칠란드파시즘과 결탁하여 프랑스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썩은 국내의 반동세력의 죄행을 강하게 폭로비판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프랑스를 도이칠란드군에게 내어준 프랑스정부와 군부의 부패성과 무능력, 비쉬 피뢰정부와 프랑스와쏘분자들의 반동적정체를 예리하게 까밝히지 못하였다.

착취사회의 조건에서 인민대중이 민족적해방을 이룩하였다고 하여 계급해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형태에서의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뿐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예속에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다.

사회가 사적소유에 기초하여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사회로 남아있는 한 계급적 대립과 사회적불평등은 계속되며 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자면 반드시 민족적해방과 함께 계급적해방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항문학의 작가들은 파시즘의 지배하에서 벗어날데 대한 문제만 제기하고 낡은 착취사회를 때려엎고 인민대중이 주인이 된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은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대다수가 부르쵸아출신이었던 이 문학작가들의 세계관적제한성과 관련되어있다.

프랑스저항문학의 작품들은 전쟁시기와 전후시기에 파시즘을 반대하고 나라의 해방과 반파쏘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프랑스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